고려불화와 2340시간…“삶 방향 정한 시간이었죠”

문화人 동국대 불교미술학과 20학번 김성문 작가

10개월 간 2340시간 졸업작품 몰입
‘미륵하생경변상도’에 현대美 눈길
경전 공부하며 손상 부분은 재해석
“불화는 인공지능 대체 못할 예술”
한국 불교미술 널리 알리는 게 꿈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지금으로부터 670여 년 전 고려시대 때 제작된 ‘미륵하생경변상도(彌勒下生經變相圖)’. 미륵불이 부처님 열반 후 56억7000만년 후 세상에 내려와 세 번의 설법회를 열고 남은 중생을 구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불화는 고려왕실 주문 요청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합작해 탄생됐다.

이런 역사적인 불화를 불교미술을 전공한 2001년생 미대생이 2024년 버전으로 모작, 재탄생시켜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동국대 불교미술학과 20학번 김성문 작가. 김 작가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무려 2340시간을 작업에만 몰입, 졸업작품을 완성시켰다.

가로 140cm, 세로 230cm 크기로 그린 이 불화는 연필 스케치에만 2개월, 붓으로 초안을 그리는데 1개월 이상이 각각 소요됐다. 초안을 선지에 옮겨 그리는데 1개월, 이후 채색은 3개월 그리고 선을 넣고 세부적인 문양을 그려 넣는데 2개월. 그렇게 장장 10개월 동안 매일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작업에 몰두한 결과 탄생할 수 있었다.

김 작가는 최근 지난 10개월간의 졸업작품 제작과정을 1분 가량의 영상으로 편집, 자신의 유튜브 채널(ARTUBE_불교미술)에 올렸다. 이 영상은 불과 한 달여 만에 600만 이상의 조회수를 달성했고 구독자 1만명을 모으는 등 인기몰이 중이다. 특히 문화재청 공식 계정에서도 댓글을 달고 응원하면서 더욱 화제가 됐다.

4월 16일 인터뷰를 위해 서울 성북동 한 카페에서 만난 김성문 작가는 “얼떨떨하다”고 말했다. 애초에 유튜브로 ‘히트’ 치겠다는 생각으로 올린 영상이 아니었기에 열화와 같은 반응이 부담스러울 정도라는 것. 하지만 “한편으로는 작품에 관심을 가져주는 감사함 역시 크기에 할 수 있는 한 댓글과 답변 영상 등을 통해 그 마음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고려시대 제작된 ‘미륵하생경변상도’는 손상된 부분이 많아 모작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이 불화를 졸업작품으로 선택한 이유는 바로 구성요소의 다양함과 재해석에 대한 욕구 때문이었다.

“학부에서 배운 것을 하나의 작품으로 선보여야 하는 것인데, 쉽게 가고 싶지 않았어요. 성격이 완벽주의에 가깝기에 재미없이 하다가는 금방 지칠 것 같았거든요. 작업 기간은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게 해줬을 뿐 아니라 삶의 방향도 설정해준 시간이었죠.”


지난해 11월 열린 졸업전시회에서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과 함께.

김 작가는 “어려운 작업을 스스로 선택했으니 완성도 높은 졸업작품을 선보이고 싶었다”고 말했다. 각종 자료를 찾아 비교 분석하고 경전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다. 이목구비부터 풍경묘사, 전각 구조는 물론 현대의 미 기준에 맞게 투시와 문양을 치열하게 고민했고 재해석을 통해 작품을 완성했다.

특히 입체감을 위한 명암 작업에만 한 달 이상을 몰두했다. 김 작가는 빛과 어둠으로 인물의 내면까지 표현한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를 가장 좋아하는 작가로 꼽을 만큼 명암법에 관심이 많다. 전통 불교미술에 명암법으로 변화를 준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앞으로 불화를 기반으로 명암을 활용한 다양한 일러스트 작업도 해보고 싶다”면서 “꾸준히 작업을 하다 보면 작품을 알아봐 주는 이가 있지 않겠느냐”고 웃었다.



김성문 작가의 유튜브 채널 ‘ARTUBE_불교미술’. 한 달 사이 1만명 넘는 구독자가 생겼다.

올해 2월 졸업한 김 작가는 여름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다.

최근 인공지능(AI)이 그림과 사진을 빠르게 창조해 그리는 상황에서 불화 작가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 것 같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 작가는 “프린트된 부처님을 예경하고 절하고자 하는 불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예경의 대상인 불교미술은 신앙을 아는 사람이 직접 그림으로써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돌을 갈아 만든 색과 금을 쓴 부분에서 나는 빛에서 느껴지는 감동은 인공지능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예술의 경지”라고 말했다.

2월 졸업 이후 아르바이트를 하며 잠시 휴식기를 가졌다는 그는 최근 다시 방안지를 펼치고 작업을 시작했다.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기 앞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방 안의 물건들을 정리한 것. 작업실이 없다 보니 그리 크지 않은 자취방에 방안지와 흰 천을 펼쳐야 했고 한쪽 벽면을 모두 사용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미니멀 라이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작업을 다시 시작하며 원을 세우기도 했다. 기존 불교미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가로 20대에는 5000시간을 몰두한 작품을, 30대에는 1만 시간을 투자한 대규모 작품을 선보이겠다는 목표다. 유튜브로 유명세를 얻은 후 여러 분야에서 협업 요청이 오고, 진행 중인 일들도 있지만 작가로서 하던 일을 먼저 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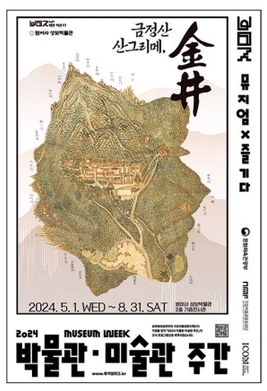
김성문 작가는 올 여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앞두고 있다. 그는 “복무를 충실히 하면서도 작품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체 불가한 불교미술 작품으로 한국의 불교미술을 널리 알리는 작업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범어사성보박물관 ‘금정산 산그리메, 金井’

5월 1일 개막…자연과 삶 주제
‘금정산 산만디 걷기’ 운영도

금정총림 범어사 성보박물관(관장 정오 스님)이 ‘금정(金井)’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특별전시 ‘금정산 산그리메, 金井’을 개최한다. 개막식 행사는 5월 1일 오후 2시 박물관 2층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전시기간은 8월 31일까지다.

이번 특별전시 ‘금정산 산그리메, 金井’은 자연과 더불어 사는 우리의 삶이 주제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2024.5.2.~5.31.)’의 주요 프로그램 가운데 ‘뮤지엄×즐기다’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범어사성보박물관은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부산의



진산(鎭山), 금정산 자락에 위치한 사찰박물관이라는 특성을 활용했다. 생태계 동식물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금정산과 함께 만들어진 금정의 역사와 문화를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특별전시를 기획했다.

이번 전시는 자연과 교감하는 역사, 문화를 통해 일상에서의 쉼을 전달한다. ‘그리메’는 그림자를 뜻하는 옛말로 산그리메는 산 정상에서 만나는 풍경이다. 산등성이가 겹치고 포개져서 만들어진 장관을 뜻한다. 전시에서는 금정산을 터전으로 살아온 생태계 동식물이 만들어낸 산그리메 위에 역사와 우리의 삶 등 문화를 얹었다.

전시는 전체 3부로 역사적 유물과 기록물, 사진 등을 통해서 금정산 호국사찰 창건의 역사와 금정산성을 지켰던 승영사찰로서 범어사, 국청사, 해월사를 선보인다. 조선시대에 금정 지역을 지나간 문장가들의 시도 관람하며 그 속에 담긴 ‘금정(金井)’을 만날 수 있다.

한편 범어사 성보박물관에서는 특별전시 ‘금정산 산그리메, 金井’과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 ‘금정산 산만디 걷기’를 5월 4일 진행할 예정이다. ‘금정산 산만디 걷기’는 자연탐방 플로깅 프로그램으로 자세한 공지는 범어사 성보박물관 홈페이지(www.beomeomuseum.org)에서 확인가능하다. 051-508-6139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누비 대중화 앞장선 김해자 누비장 보유자 별세

1970년대 왕실 침방 나인이었던
선복 스님에게 바느질 · 누비 배워



전통 누비의 명맥을 이어오며 대중화에 앞장서 온 김해자 국가무형문화재 누비장 보유자<사진>가 4월 13일 별세했다. 향년 71세.

일평생을 전통 누비 기법의 보존과 전승에 헌신한 김해자 누비장 보유자는 어려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바느질 기초를 배웠다. 중학교 졸업 후인 197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옷 만드는 법을 익혔다. 조선시대에 침방 소속으로 바느질하던 나인이었던 성옥염 씨와 선복 스님에게 바느질과 누비를 배웠다.

1980년대 초 15년간 경상북도 창녕에서 살면서 누비에 전념, 다수의 제자를 길렀다. 박물관 유물과 구전으로 전해진 전통 기법을 아는 이들을 찾아가 배우는 등 명맥이 거의 끊긴 전통 누비를 되살렸다.

전통 누비를 되살린 장본인이자 전통 누비 기법의 보존·전승활동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2년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으며 1996년 누비장 보유자가 됐다. 2000년대 들어 일본 도쿄, 프랑스 파리, 중국 북경 등에서 초대전 등 여러 차례 전시를 여는 등 왕성한 활동을 벌였다.

문화재청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전시에도 작품을 출품하면서 누비옷 대중화에 앞장섰고, 일평생 누비 제작의 문화재적 가치를 선양하는 데 이바지했다”고 고인을 기렸다.

임은호 기자

